



글. 윤기홍 중국통신원
중국 베이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변화되고 있는 중국 언론의 북한 보도

북한의 사실상 유일한 우방이자 혈맹 관계를 맺어온 중국에서 북한 관련 보도가 늘고 있다. 북한과 중국 간 경제·문화·관광·교육 교류가 부쩍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투자·무역·관광 등을 목적으로 북한을 왕래하는 중국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북한 소식도 많아지고 있다. 중국의 3대 관영매체인 신화통신(新華通訊), 인민일보(人民日報), 중국중앙TV(CCTV)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평양에 특파원을 두고 북한 현지의 생생한 뉴스를 들려가고 있다. 이들 매체가 전하는 북한 관련 기사와 사실·칼럼은 전국의

기관지·상업지·전문지와 인터넷 포털 매체로 빠르게 옮겨지고 있다. 신문·방송·잡지의 웹사이트는 물론 대형 온라인 포털·검색 사이트인 바이두(百度)·팅신(騰訊)·시나(新浪)의 국제·군사뉴스 코너에는 연일 여러 건의 북한 관련 기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탄탄한 대북 관계를 바탕으로 많은 북한 정보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 나오는 북한 기사는 다른 나라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는 세계 각국은 중국 언론매체가 보도하는 북한 관련 기사를 늘 주시하고 있다. 중국 매체의 대북 보도



중국 환구시보의 웹사이트
인 환구망이 마련한 한반도
정세 관련 뉴스 코너

는 북한 내부 상황 뿐 아니라 북·중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언론사의 주종 특파원들과 한국 공관 관계자들도 정보와 기삿거리를 찾기 위해 항상 중국 매체들의 기사와 인터넷 매체들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중국 주간지 환구인물
2013년 3월 6일자 표지에
게재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원회 제1위원장 사진

이처럼 중국 매체의 북한 관련 기사량은 늘고 있지만, 북한 관련 기사에 대해 중국 독자는 물론 외국도 만족스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단편적이면서 북한 실상과 거리가 먼 기사들이 적지 않은 게 이유 중 하나다. 북한 당국 발표와 관영매체의 보도를 인용한 기사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높다. 중국의 평양 주재 특파원들이 취재해 보도하는 기사는 범위와 심층적인 면에서

아직은 독자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용자 입장에서는 중국 매체의 보도만 접해서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 힘들다.

특히 그 동안 중국 언론매체의 보도에서 보기 드문 것 가운데 하나는 북한 비판 기사다. 물론 원색적인 대북 비난 보도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두 나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비판 보도는 소수에 그쳐 왔다. 이는 인위적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국의 보도 지침이나 검열·삭제와 같은 통제에 따른 결과다. 북한과 중국의 특수한 관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중국 언론계조차 '북한 때리기'는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라는 농담조의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중국 언론의 보도에서 북한 비판 금지라는 '불문율'에 균열이 잇따라 생겨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몇 해 전부터 하나둘 나타났던 대북 비판 보도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초 북한에 이어 올해 초 중국에서도 권력 교체가 이뤄져 새 지도자가 들어선 상황에서 중국 내 대북 비판 보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 공산당 정부와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하는 관영 언론매체들까지 북한 비판 보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발맞춰 중국 내 관련 학자뿐 아니라 군부 인사들까지도 언론매체를 통한 북한 비판 대열에 끼고 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반북(反北)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북한 실상을 외면한 기사를 비롯한 동시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 북한 지도자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글과 영상물도 만들어 온라인 공간에 퍼뜨리는 데도 적극적이다.

중국 언론매체들의 북한 비판 보도는 아직 규모와 수위 면에서 미미한 편이지만, 앞으로 북·중 관계와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현상은 북·중 관계에 다시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북한의 유일한 후원자 역할을 해온 중국의 대북 정책의 수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언론매체의 북한 비판 늘어

중국 언론매체들의 북한 비판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실험 실시·미사일 발사와 맞물려 있다. 역사·문화·



북한·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한·중·일과 달리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핵문제가 갈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 중국 외교부를 포함한 당·정·군과 관영매체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표현 하나하나에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국 관계가 결끄러울 때도 북한을 자극할 만한 언사는 가급적 피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중국은 공식 발표한 외교부 성명에서 '북한이 제멋대로 핵실험을 실시한 데 단호히 반대한다'며 비판을 가했다. 특히 이 '제멋대로'라는 표현은 중국이 북한을 향해 던진 매우 이례적인 강경한 언사여서 단번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렸다.

북·중 관계는 이를 계기로 소원해졌고, 중국 안에서도 반북(反北) 여론이 형성됐다. 그 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비롯해 중국 어선 나포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했다.

이런 상황은 중국 매체의 대북 보도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관영매체들을 중심으로 전례 없이 대북 강경론이 분출됐다. 기사 헤드라인과 본문에는 '북한과 동맹 관계가 아니다',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받아도 돕지 말아야', '북한을 응징해야'라는 강경한 문구들이 들어갔다. 또 북한을 향해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경고도 잇따랐다. 오랜 기간 끈끈한 우방 관계를 유지해온 두 나라 사이에서 상상할 수 없던 언사들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북한 비난 보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중국 매체는 환구시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출판하는 국제뉴스 분야 자매지로 1993년 창간된 뒤 1997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뀐 환구시보는 중국의 국제사회 지위 급상승과 함께 국제 문제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단기간에 높은 지명도와 영향력을 얻었다. 2009년 4월에는 영문판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를 창간하며 국제 사회를 향해 중국의 목소리 확산에 속도를 냈다. 이에 힘입어 환구시보의 발행부수도 창간 초기 3만 부에서 최근 최대 240만 부로 급증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내 언론매체 가운데 북한 비난 보도 횟수와 수위 면에서 단연 눈에 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 주에도 수차례 북한을 비난하는 사실과 칼럼, 기사를 게재해 왔다. 중국 주요 관영매체를 비롯해 상업 매체, 인터넷 매체들도 환구시보의 북한 비난 사실과 기사들을 전재하며 퍼뜨리고 있다. 환구시보는 외국 언론매체

가 북한 및 북·중 관계 관련 뉴스를 전할 때 인용하는 중국 매체 가운데 신화통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환구시보가 다른 중국 매체에 비해 북한 관련 기사를 많이 보도할 뿐 아니라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때론 북·중 관계의 파탄까지 거론해 가면서 북한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환구시보의 북한 비판 사실과 칼럼은 내용만 떼어 놓고 본다면, 한국·미국 내 일부 보수 언론매체의 북한 비판 기사가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중국 당국이 평소 보도 검열·통제를 하고 있는데다 환구시보가 인민일보에서 펴내는 자매지라는 점을 볼 때, 환구시보의 이 같은 대북 비난 보도에는 중국 공산당 정부와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국제뉴스 자매지인 환구시보

중국 전문가들 '북한 버려야' 주장

중국 내 한반도·국제문제 전문가들도 북한을 겨냥해 환구시보 못지않은 강한 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관변 학자 또는 당·정부 산하 연구기관 소속이어서 중국 공산당 정부의 시각과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북한 관련 발언으로 국내외에서 이슈가 된 인물은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中央黨校, 중국 공산당의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국립 교육기관)의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당위원(鄧聿文) 부편심

(副編審·부편집장). 그는 지난 2월 28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북한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들면서 '중국이 조만간 실패할 정권과 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표적 관변 학자인 루자오(呂超) 라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4월 16일 환구시보 기고문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중국이 계속 꾸짖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위관(楊宇冠)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홍콩의 대공보(大公報)에 기고한 글에서 '중·북 우호조약을 놔두면 중국의 핵심 이익에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는 각각 중·북 우호조약 폐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인, 반복 감정 고조...

누리꾼들 북한 성토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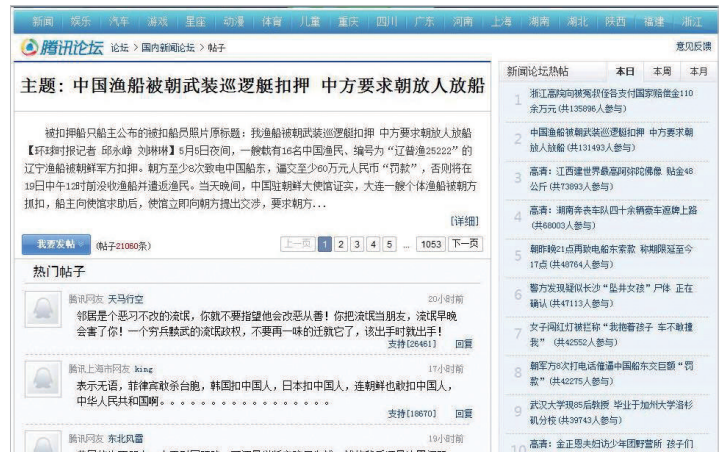
중국 온라인 공간은 누리꾼들의 북한 성토장이 됐다. 많은 중국인들은 반일 감정이나 반한 감정만큼 반복 정서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북한 관련 기사의 댓글 게시판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 북한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처 방식에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이후 중국 내 대북 여론이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중국의 여론조사업체인 링덴(零點, HORIZON)이 지난 3월 베이징·상하이·광저우를 포함한 12개 대도시의 성인 1,13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4월 2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2%는 '군사적 행동을 취해서라도 북한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응답자는 41.2%를 차지했다. 또 '핵개발 저지를 위해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의 51.9%에 달했다.

중국인의 북한에 대한 호감도 역시 과거보다 떨어졌다. 링덴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벌인 조사에서 북한은 줄곧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인들이 호감을 갖는 나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61.4%를 기록, 한국의 70.5%보다 낮았다.

지난 5월 북한이 중국 어선(랴오푸위 2522호)을 억

류한 사건은 중국인들의 반복 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북·중 동맹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북·중 관계 단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 인터넷 포털 텅신의 관련 기사 게시판에서는 '북한이 아만적 방식으로 중국인을 괴롭히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북한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북한에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일이 있다면 곧바로 김씨의 3대 동생(중국인들이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비하할 때 쓰는 말)부터 처야 한다'는 격한 말들이 쏟아졌다.



중국 누리꾼, 북한 지도자 조롱 글·영상 올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3대 지도자들과 북한 정권을 조롱하는 다양한 패러디 영상도 내놓았다. 북한 지도자를 비판한 이들 동영상은 중국 당국에 의해 삭제됐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웨이보나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중국 누리꾼들은 북한의 지도자와 권력 세습을 비웃는 풍자적 언어도 만들어 쓰고 있다. 누리꾼들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일가를 똥보나 돼지라는 뜻으로 '팡즈(胖子)'로 부른다. 세습이 본격화되면서 김일성은 '개국 똥보', 김정일은 '2대 똥보', 김정은은 '3대 똥보'라 부르기도 한다.

이뿐 아니라 중국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웃고 풍자하는 제품 광고도 등장했다. 지난 2월 25일 중국의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진산(金山, Kingsoft)은 자사의 새 웹브라우저 '리에바오'를 홍보하기 위해 김정은을 소재로 한 동영상 광고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 광고에서 김정은을 닮은 배우가 위성발사 카운트다운을 지켜보

5월 20일 포털사이트 텅신에 올린 북한의 중국 어선 억류 관련 뉴스

다가 발사 순간 웹브라우저가 다운되자 화를 내며 부하에게 충을 겨눈다. 부하가 재빨리 진산의 웹브라우저를 내려 받아 시스템을 정상 작동시키자 분위기는 반전된다. 이에 김정은은 웹브라우저 제품명 리에빠오를 담아 개사한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에 맞춰 여군들과 함께 말춤을 춘다. 진산은 이 광고에서 쉽게 흥분하는 성격으로 그려지는 김정은의 화도 풀만큼 자사 웹브라우저가 빠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닮은 배우가 진산 광고에서 강남스타일 음악에 맞춰 말춤을 추고 있다.



누리꾼들은 웨이보와 바이두, 텅신 사이트 등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김태양', '얼팡'(二胖·둘째 똥둥이·김정일을 지칭), '똥보' 외에 중국에서 한국인을 비하할 때 자주 쓰는 속어인 '방즈(棒子·방망이·몽둥이)'나 '가오리(고려) 방즈'를 써서 부르며 원색적인 반감을 표시했다.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 풍자 그림



이처럼 중국에서 북한 지도자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퍼지는 현상은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북한이 더 이상 환영받지는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일부 중국인들은 6·25전쟁 때 북한과 동맹을 과시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느끼기도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북한을 구시대적이고 낙후된 나라로 여기고 있다. 또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체면을 깎아 내리고 중국 발전에 이롭지 않은 장애물로 여기는 중국인들도 많다.

아울러 중국에서 전례 없이 북한 비판 보도와 반북 정서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북·중 관계 변화와 함께 중국 안에 쌓인 북한에 대한 불만도 자리 잡고 있다. '순망치한'의 혈맹관계였던 북·중 관계는 1992년 한·중 수교,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1·2차 핵실험 등을 거치며 소원했다가 일정한 냉각기를 지나 점차 복원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실험으로 다시 금이 가기 시작한 북·중 관계는 4월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로 인해 악화됐다.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6자회담의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북한은 6자회담 종결과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중국과 엇박자를 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북한의 중국 어선 나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국인들의 반북 여론이 고조됐다. 관련 학자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일부 부처에서 '북한 경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 지 오래다. 중국 고위 관리들은 북·중 관계는 이제 '일반적 국가관계'라고 서슴없이 밝히고 있다.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고 혈맹 관계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북한에 대한 비난성 보도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게 중국 언론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언론의 북한 비판 수위 통제..

북한의 반발도 이유

보도 검열·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중국에서 북한 비판성 보도는 당국의 묵인이나 느슨한 관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당·정·이 대북 비난 보도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족쇄를 완전히 푼 것은 아니라고 중국

언론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당국이 북·중 관계 상황과 변화에 따라 보도 통제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에도 북한을 자극하거나 북·중 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한계선'을 넘어서려는 보도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최근 사례 가운데 하나로 지난 2월 영국 파 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던 당위원 학습시보 부편심(副編審·부편집장)은 직위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중국 당국은 대북 정책에 맞춰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에 우호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중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동정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북한의 새 지도자로 각인시키는 데 주력했다. 중국 신화통신·인민일보·CCTV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발표한 2011년 12월 19일부터 추도기간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김정은 제1위원장에 초점을 맞춰 북한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관영매체들은 경결식 후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정·군을 이끌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영도'해 나간다는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중국의 지도자 그룹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후진타오 주석 집권 시절에는 9명)의 주요 동정이 관영매체에 소개되기는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처럼 외국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열흘 넘게 실시간으로 비중 있게 보도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중국 내 북한 비판 보도 확산될 가능성 주목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은 중국의 새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서 중국 언론의 북한 비판이 확산될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지에 쏠리고 있다. 북한의 거의 유일한 후원자이자 식량·에너지·경제 지원자인 중국의 북한 비판 확대는 양국 관계의 악화와 동시에 중국의 대북 정책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다.

중국 언론의 북한 비판은 앞으로 무엇보다 중국의 관심사인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여부에 따라 확산 또는 감소의 향방이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초 미국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 회담에서 중국 쪽은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굴복'시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의 행동 변화가 있을 때까지 김 위원장을 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쪽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미국과 의견을 같이했다는 발표도 나왔다.

대북 제재의 실질적 칼자루를 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 쪽에 전한 이런 발언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북한쪽의 반응에 따라 북·중 관계가 악화될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중국 언론의 대북 비판의 수위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북한이 한국·미국은 물론 중국이 줄기차게 촉구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북·중 관계는 회복의 길로 돌아설 기회를 맞는다. 양국 간 갈등의 핵심 요인이 해결 단계로 들어서는 만큼 중국 관영매체를 중심으로 한 북한 비판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누리꾼을 비롯한 중국인의 반북 정서의 경우, 중국 당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확산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국제문제 전문가와 언론계에서는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도 사실상 유일한 우방인 중국과의 우호관계 회복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 많다. 중국 언론과 국민들의 북한 비판은 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최근 '북한을 포기하지는' 주장은 지나치게 극단적이며 중국의 외교적 선택이 될 수 없고 중·북 관계가 파탄을 맞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어쨌든 중국 언론의 북한 비판 확산 여부는 북·중은 물론 남북과 한·중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커다란 이슈인 만큼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